

김신 장군 자서전  
『조국의 하늘을 날다』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우수작 모음집



# '21년 『조국의 하늘을 날다』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심사평

## 어문학과 국어교수 홍주영

독후감에서 중대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를 물성으로서의 중대 멘탈리티라 할 수 있을까. 중령, 중위 둘이서 각각 일주일 꼬박 400부의 독후감을 심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내용이 거의 같아 분류작업은 적잖이 고통스럽게 되는데, 그나마 작업을 흥미롭게 해준 것은 각 중대 학년 그룹의 색깔을 느끼는 것이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국문학자들이 이런 글을 통해 사관생도들이 가진 생각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면 믿을까? 마치 지문감식을 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의 글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고, 마치 유적발굴을 하는 것처럼 특정 생도의 마인드셋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때로 감동을 준다. 한 생도로 인해 중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번 독후감 문치들을 읽으면서도 차분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미의 지형도라는 방식이다. 설화나 방언을 연구할 때 쓰는 방식으로, 모티프들의 동일성을 찾아내고 같은 것끼리 선을 이었을 때, 신기하게도 여러 개의 원이 되고 그것은 등고선처럼 나타난다. 의미의 지형도이다. 등고선의 가장 가운데가 원형(archetype)이다. 원형이라 함은 그 중심에 있는 생도가 다른 생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변주가 그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독후감들은 잘 쓴 것 천지였다. 그리고 동심원의 가운데에 있는 생도가 김신 자서전을 유달리 읽게 만든 진지함의 원천이자, 중대 동기그룹



모티베이션의 원천일 것이다. 서로 많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절을 두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원래 ‘~하고자 함’ 즉 모티베이션의 문학적 표현인 욕망(desire)은 모방되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바람대로 아들 김구와 손주 김인/김신이 자라난 것처럼. 그리고 김신의 욕망이 사관생도들에게 모방되는 것처럼.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의 인생을 무의식중에 따라 살게 된다.


심사위원인 나는 2014년 박사논문을 쓰면서 김신 장군의 자서전을 읽었다. 김구 주석의 정치운동을 연구하는 장에 참고문헌으로 달았는데, 그의 모든 결단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들이었다. 흔히들 “하면 된다” 정신으로 살면 피곤하고, “되면 한다” 정신으로 살아야 실속이 있다는데, 김구 주석과 김신 장군의 삶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한다”로 점철된 기록이었다. 쉽게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쳐왔던 삶이었다. 그것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 자양분 위에 산다.

제목을 보자. “조국의 하늘을 날다”이다. 의미로 보아 이 제목은 “조국의 하늘”과 “하늘을 날다”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사관생도들이 조종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관학교에 진학한다. 그래서인지 생도들은 “하늘을 날다”에 주목하여 감상문을 시작한다. 그리고 점차 “조국의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 심사위원은 그것이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도가 이룩해 낸 성장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저자가 말하는 “조국의 하늘”은 통일된 조국의 하늘일 터, 아마 이 독후감 대회를 기획하는 분들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뛰어넘는 한민족의 동일성, 우리 강토의 한결같음을 사관생도가



인식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한다. 강산은 이어 달리고, 하늘엔 금이 없어 철조망을 넘어 새들은 난다지만, 강철로 만든 날개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그 철두철미한 군인정신을 견지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통일된 조국이라는 별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필승의 신념과 이념적인 선명함, 전승의 기량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싸움을 피하지 않는 호전성을 갖고 있어야 함은 너무나 분명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평화나 사랑 ‘따위’가 마치 방금 나온 사리(舍利)처럼 뜨겁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 어문학과 국어교수 이병주

많은 생도가 자서전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글을 읽는 내내 아쉬움이 남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인의 자서전을 읽고 위인의 대단함에 경도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 위인의 자서전을 통해 생도 자신의 모습을 재평가하길 바랐다. 그 경험만으로도 생도로서 정도(正度)의 길을 나아가갈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위원들은 위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도의 글을 높이 평가했다. 단순히 김신 장군의 위대함에 경도된 것이 아니라, 김신 장군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새김질하거나 장교로서의 미래를 그려보는 일까지 나간 생도들의 글은 읽는 사람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기 충분했다.

최우수작으로 뽑은 이보미 생도의 글은 생도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했을 ‘삶의 가치’와 ‘꿈’을 김신 장군의 일화를 통해 이야기한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어른이 된다는 건 손발이 자라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해진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성인이란 이름으로 세계에 던져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민과 탐구는 젊은 사람의 특권이나 풋풋함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생도에겐 세상을 둘러보고 이곳저곳 방황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생도들은 낯선 어른의 세계에 던져지자마자 군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도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생도라면 항상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곱씹는 사관생도 신조는 알게 모르게 생도의 어깨를 짓누른다. 생도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견뎌야 한다. 당장 힘든 순간을 견디기 위해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잡는다.



일반 대학생들에겐 장학금이 될 수도, 대기업 취직이 될 수도 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라면 누구나 갖는 ‘조종사’라는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닌 단기적인 ‘목표’일 뿐이다. 이보미 생도는 이 ‘목표’를 넘어 ‘진실한 동사(動詞)’로서 ‘꿈’을 고민한다. 생도로서 ‘애국’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표층적인 의미를 넘어, ‘진실한 동사(動詞)’로서 ‘애국’을 생각하고 ‘하염없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굳세게 ‘애국’을 외치는 김신 장군의 모습을 자신이 나아갈 ‘애국’의 ‘실천’ 전형으로 삼는다. 선열들의 ‘심지’를 이어받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을 이보미 생도의 ‘꿈’을 응원한다.

우수작으로 뽑은 기호진 생도와 정지명 생도의 글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기호진 생도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걱정한다. ‘선열’들의 꿈과 목표를 ‘군인의 자세’로 내재화하고 있다. 너무나 거창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반성한 모습은 생도가 나아갈 길의 ‘선택’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정지명 생도의 글은 편안한 문체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1학년 답게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동기(動機)를 떠올린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지키고자 하는 작은 ‘마음’에서 ‘조국’의 하늘을 품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굳은 마음이 느껴진다. 이 두 우수작은 시작의 크기는 다르지만 결국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나라를 지킬 ‘군인’으로서의 생도들의 힘찬 비행(飛行)을 기대한다.

장려상으로 뽑은 김규희, 차준호, 김재형 생도의 글은 장려상(獎勵賞)이라는 말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개성이 넘쳤다. 김규희 생도는 유려한 문체로 애(愛)에 대해 고민한다. 앞으로 생도가 바라볼 ‘조국의 하늘색’은 ‘영원한 빛’에 이름을 남긴 선배들의 애국(愛國) 덕분에,



그리고 자신의 가질 후배에 대한 애정(愛情) 덕분에 ‘아름다운 색’이 될 것이다. 차준호 생도의 글은 평소 생도의 성실함이 묻어난다. 김신 장군의 삶을 충실히 읽어내는 동시에 자신의 일화와 생각을 엄청난 분량으로 녹여냈다. 바쁜 생도 생활 속에서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성실함은 글뿐만 아니라 생도의 앞날을 기대하게 한다. 김재형 생도의 글은 1인칭 시점으로 김신 장군의 ‘전문성’, ‘정신력’, ‘절실함’, ‘리더십’에 대해 탐구한다. 각 주제를 통해 자신의 감상을 충실히 엮어내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장려상에 뽑힌 생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김신 장군의 자서전을 충분히 소화해냈다.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해낸 김신 장군의 정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지 생도들의 앞날이 기대된다.

이번 독서감상문 대회는 수상작에 뽑히지 못했지만,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다. 광승현 생도가 김신 장군을 통해 느낀 솔직한 감정, 김영건 생도가 그려본 공군사관학교의 미래, 박찬 생도가 보여준 애국심, 유재윤 생도가 읽어낸 공군 핵심가치, 이유진 생도가 꿈꾸는 정의, 최은유 생도가 보여준 겸손함 등이 인상적이었다. 비록 수상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생도 각자의 고민이 물씬 묻어난 글들이었다.

생도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항상 설렘과 걱정을 동반한다. 생도가 생각하는 세상을 함께 볼 수 있어 설레기도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인해 수상(受賞)하지 못한 생도들의 글쓰기가 위축될까 싶어 걱정된다. 이러한 걱정을 상쇄하고도 남을 설렘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희망하며, 학업과 훈련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성실하게 독후감을 써준 모든 생도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최 우수

---

김신, 애국의 꿈 2학년 이보미 7p

우수

---

타오르는 신념의 불꽃으로 밝힌 조국의 하늘 1학년 정지명 11p

“순국선열이 있기에 나의 꿈은 외롭지 않다” 2학년 기호진 16p

장려

---

나의 애(愛) 2학년 김규희 20p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삶 2학년 차준호 23p

강인한 자여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받들라 1학년 김재형 39p

출품작

---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를 바라보다 2학년 곽승현 44p

뉴노멀 시대의 공군사관생도는 하늘을 날 수 있을까 2학년 김영건 47p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 2학년 박 찬 51p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1학년 최은유 54p

하늘은 말이 없지만 그 가르침은 사람을 움직인다 1학년 유재윤 58p

은빛 날개 너머에 비친 삶을 기리며 1학년 이유진 63p

## 김신, 애국의 꿈

2학년 이보미

우리는 종종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잊곤 한다. 그저 흘러가는 하루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하루가 가는지도 모르고 슬퍼하기도 한다. 또 오늘을 내일로 미루면서 애써 괜찮다고 눈을 감기도 한다. 이런 우리 중 하나인 나는 여느 때처럼 이유 모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 공부하는 이유도, 훈련을 받는 이유도, 운동하는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옳은가?’라는 답을 찾지 못한 질문도 많이 했었다. 아무래도 꿈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이렇게 앞이 안개에 가린 길을 걷고 있는 나와 달리, 김신 장군의 삶은 맑은 날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릴 적 수학여행에서 간미림 비행장에서 비행 모습을 보고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다. 그는 그 꿈을 평생을 간직하고 달려 나가고 있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꿈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곳곳에서 공습이 발발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피난하러 다니던 중 할머니와 형님을 잃게 된다. 평생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바친 김구는 불효자가, 못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죽음이 사방에 널려있었다. 제대로 된 곳에 물어드릴 수조차 없었고, 독립이 되면 유골을, 너무 오래되어 뼈가 없어지고 흙이 되었다면 머리 부근의 흙이라도 한국에 가져가 물어달라는 유언마저 10년 후에도 지킬 수 있었다. 열악한 상황에서 김신 장군은 어린 시절의 꿈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

김신 장군은 ‘지기불가위이위지자(知其不可而爲之者)’라는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김구 선생을 생각한다. 아니 될 것을 알고도 끝까지 해낸다는 뜻을 가진 이 구절처럼 김구 선생은 안 될 것을 알기에 더욱이 끝내 해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셨던 분이다. 김신 장군도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암살 위협에도 내일 목이 꺾이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던 김구 선생처럼 김신 장군도 쿠데타 이후 공군 개혁을 단행하게 되면서 정치적 보복의 위협을 받지만, “내 임기 최후의 5분까지 내 힘을 다해 사용할 것이다. 임기 이후의 일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한다.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김신 장군의 출격 일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인민군의 주 보급로였던 승호리 철교를 끊지 못하였지만, 한국 공군이, 김신 장군의 폭격이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을 성공시킨다. 출격 횟수가 중요할 뿐 위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던 미군과 달리 그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위험천만한 저고도 폭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철교뿐만 아니라 근방의 주요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었다. 큰 활약을 보여준 그는 강릉에서 전투비행전대장으로 있던 시절, 그는 부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함께 출격하곤 했다. 그러다 비행기가 피탄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모총장에게 한 소리를 듣고 근무지가 바뀌게 되기도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대장이었던 자신이 출격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런 김신 장군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던 것은 애국심이었다. 그는 단지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다. 비행사는 단지 애국을 그가 가장 훌륭한 형태로 실천하는 수단이었다. 나는 항상 ‘동사의 꿈’을 가지고자 했다. 예전에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꿈을 명사로 한정하지 말라며, 명사가 아닌 동사를 꿈으로 가지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삶에 가치를 심기 위해 나의 직업, 목표를 뒷받침할 동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 동사의 꿈을 가지라고 하지만 어떤 가치를 내 삶에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내게 김신 장군은 내가 가져야 할 삶의 가치를 알려주었다.

내가 가져야 할 가치는 바로 애국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애국이라는 가치는 어떤 가치보다도 크고 깊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 무기력한 하루하루는, 찬란해 보이지 않는

목표들은 아직 그럴듯한 동사의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곤 했다. 삶의 가치는 더 크고, 더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고결하고 숭고한 가치를 꿈의 동사로 두기는 두려워 내가 가져야 할 가치를 눈앞에 두고 헤매었다.

이 기회에 ‘애국’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생도라는 이름을 달고 애국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도 혼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애국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위치에도 불구하고 애국과 가장 멀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기에, 애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신 장군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들을 통해 순국선열들이 지키고자 했던 땅, 국민, 가족, 꿈들을 통해서 애국의 형태를,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애국은 항상 가까이 있고 어디에나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순국선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내 곁의 가족을, 친구들을 지키고 싶다면 모두가 애국의 가치를 꿈의 동사로 가질 자격이 있다. 앞으로의 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할 가치가 애국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김구 선생이 암살 위협에도 “내 평생 그런 거 무서워한 적 없다. 내일 목이 꺾이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던 것도, 김 신 장군이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평생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마음속에 애국이라는 진실한 동사가,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평생토록 굳건하게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6.25 한국전쟁 중 평양을 점령한 뒤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어 후퇴하게 되었을 때, 김신 장군은 T-6를 타고 안악으로 향해 작은 낙하산에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니 피난을 가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달아 투하했다. 주도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안악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편지 덕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신 장군이 단지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더라면 이 피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 꿈 뒤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누군가는 이 책이 그저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낸 역사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김신 장군이 그저 역사를,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나날들이었을 역사 속에서 그는 애국이라는 심지를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실행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는 적어도 이 시기보다는 평화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염없이 흔들렸다. 나에게에는 심지가 없었다. 바로 설 심지도 없는데 뛰어보려 애썼기에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는 매일 넘어졌다. 김신 장군은 선열들이 분투하셨던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분투했던 사람이다. 그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어른들이 있었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정치세력이 충돌할 때에도 ‘애국’을 잊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다. 김신 장군은 이런 솔선수범하고 침착과감한 모습들을 후배 공군인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신 장군의 회고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를 실천하라고, 애국을 품고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꿈을 이루라고 다정하게, 또 따끔하게 나를 응원해주는 것만 같다.

하루하루 똑같은 것만 같은 생활에 지치기도 했었고 내가 있는 위치에 의문을 품은 적도 많았던 지난 날들이었다. 우연히 마주한 혼란스럽고 정열적인 시대를 관통한 김신 장군의 삶. 그의 삶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싶었고 가질 수 있음에도 흘려보내고 있던 것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옳은가?’라는 답이 없던 질문은 어느새 지워졌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내게 다시 하게 되었다. 선열들이 품었던 애국이 나의 심지가 되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동사의 꿈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번 김신 장군의 삶을 곱씹으며 나의 질문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해 본다.

## 타오르는 신념의 불꽃으로 밝힌 조국의 하늘

1학년 정지명

잘 쓴 문장이라기엔 어딘가 어색한 문체,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것도 같은 맥락. 그럼에도 이 책이 다른 어떤 명작보다 나의 가슴을 절절히 울리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 나 또한 김신 장군님과 같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이 나의 마음을 조국의 평화와 안녕에 두었기 때문이리라. 백범 선생님께서 온몸을 불살라 피우신 대한민국이라는 불, 그의 아들이 말하는 뜨겁고도 따뜻한 불길의 흔적이 나에게 더욱 와닿는 것은 나 또한 대한의 군인으로서 하늘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 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 역사의 큰 위인이신 백범 선생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들에서 드러난 영공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팬시리 나의 신분과 소속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책을 읽는 처음에는 투박한 군인의 문체에 흥미를 느꼈다.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유명한 다른 책들에 비해 김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삶은 조금 투박하고 맥락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시간이 없어 읽던 책을 덮어야 할 때마다 내가 느낀 감정은 분명 아쉬움이었다. 오히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책을 덮었을 때 내에게는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고양감과 사명감 같은 감정이 나를 채웠다.

나에게 ‘조국의 하늘을 날다.’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다. 책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책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책 속의 김신 장군님께서 내게 말을 거셨다. 그가 말하는 백범 선생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바라셨던 조국을 보여주셨다.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또한 너의 조국 대한민국을 잘 부탁하노라고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내가 어렵듯이 알고 있던 김구 선생님의 모습은 강인하고 든든한 민족의  
12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우수작

아버지였다. 민족이 그를 따라 모였고, 그의 숭고한 신념을 존경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그 또한 한 명의 사람이었음을 이 책을 빌려 고백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현실성이 그의 신념을 더욱 존경하게 한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즉 김신 장군님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서럽게 울던 그의 모습은 그에게도 의지할 기둥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당신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사셨던 당신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남김없이 바쳤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었고, 그 소원이 그를 불효자로, 무심한 가장으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조국이 가족이요 부모였고, 또한 자식이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은 그 불씨를 이어받았다. 김신 장군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정신은 일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조국을 향한 사랑이었다. 조선 혁명당의 당원 이운환이 그의 아버지에게 총을 쏘고도 청년 김신이 흔들림 없이 중국의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혹독한 비행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위함이었으리라, 김구 선생님의 조국을 향한 사랑을 그도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이리라.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당신의 생명보다도 중히 여기셨던 조국의 미래를 그도 보았기에 그 미래를 향하는 길 위를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김신 장군님이 본 조국의 미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닐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었겠지만 만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것이다. 그저 더 나은 내일을 바랄 뿐이었을 것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고 든든한 군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적어도 침략에 대한 걱정만큼은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삶을 바쳐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침략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임에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북한을 비롯한 다양한 잠재적 적의 공격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를 알아보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김신 장군이 독립 이후 아버지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을 때 전투기의 모습을 보고 느낀 감정은 그에게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결심을 불어넣었고, 결심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불씨와 만나 타올랐다. 타오른 불길은 조국의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음에도 그 불길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신 장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였다. 주어진 임무 수행 이외에도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냈고,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의 목적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국의 청명한 하늘을 지키는 것이었다. 물론 군인은 임무를 수행함으로 나라를 지킨다. 하지만 김신 장군은 그 삶의 목적을 조국의 미래에 두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김신 장군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지휘하였고, 그와 함께 비행했던 그의 전우들에게도 스며들었다.

자신의 삶을 조국의 하늘에 바친 사람들이 이뤄낸 성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영화 ‘빨간 마후라’의 소재로도 사용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보급로 중 하나였던 승호리 철교를 당시 공군 대위였던 김신 장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군이 P-51 머스탱 6기를 이끌고 저고도 폭격으로 완전히 부숴버린 작전이다. 미군조차 실패한 작전을 목숨을 걸고 수행해 보란 듯이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군 대위 김신은 작전 이후 적의 포화로 인해 기체의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음에도 무사히 귀환하였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의 완수를 위해 돌진했고, 그 용기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불꽃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고, 어둠 속 불길은 이정표가 되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조국을 위해 피운 불꽃은 그의 아들에게 불씨로 남았고, 독립운동가의 아들은 그 불씨로 삶을 불살라 조국의 하늘을 밝혔다. 암울한 조국의 하늘에 떠오른 불꽃은 사람들을 모았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리라는 그의 마음은 대한민국 공군의 이정표가 되었다. 당장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당장 다음 비행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짓고 있었던 군인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다. 태극 마크를 단 비행기로 자유로운 조국의 하늘을 지키리라는 결의는 나의 가슴 또한 부풀어 오르게 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의 불꽃은 꺼질 줄 몰랐다. 전쟁 이후 제 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던 김신 장군은 “임기 최후의 5분까지 내 힘을 다 사용할 것이다. 임기 이후의 일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며 공군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자신부터 검소한 삶을 살며 적폐를 없애나갔다. 그가 권력 속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불꽃이 그의 신념을 장작 삼아 멈추지 않고 타올랐기 때문이리라. 그의 신념은 조국의 독립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하늘을 원했고, 그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했다. 그렇기에 그의 신념은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

책을 덮고 내가 공군사관학교를 위해 노력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나에게 공군사관학교는 일종의 목표였다. 내 고등학교 생활의 결과로서 바라던 이상이었고, 노력의 이유였다. 하지만 김신 장군의 이야기는 나에게 공군사관학교를 맹목적인 목표에서, 더 큰 목표를 위한 간이역이자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었다. 공군사관학교 면접을 진행할 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고 자란 내 조국 대한민국.’ 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다. 나에게 조국의 의미는 나와 내 주변의 모국이었다. 원래부터 있었던 터전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고 자란 내 조국은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하늘 아래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사수한 하늘의 아래 있다는 것은 평화 속을 살고 있는 나에게겐 어찌면 먼 이야기였던 것 같다. 내가 지켜야 하는 조국의 하늘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다.

김신 장군의 인생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의 아들에게 심은 불씨에서 피어난 불꽃이 되어 조국의 하늘을 밝혔고, 이제는 그 불길의 흔적이 그의 회고록에 담겨 조국의 하늘을 향한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는 나에게 왔다. 시대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조국을 향한 마음이다. 나 역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 되기 위해 별들의 무대인 공군사관학교에 발을 들였다. 이 글을 쓰며 내가 지키는 대한민국의 하늘, 그가 바라 마지않았던 자유로운 조국의 하늘을 태극마크가 그려진 전투기로 지키는 미래를 그린다.

김신 장군님은 2016년 5월 19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조국의 하늘을 위해 삶을 불사르며 살아오셨다. 그리고 지금 2021년의 공군사관생도는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을 읽고 마음 깊이 결심한다.

당신의 불꽃은 조국의 하늘을 밝혔고,

그 밝은 하늘 아래 내가 이렇게 자라 이제는 그 불꽃을 이어받겠노라고...

## “순국 선열이 있기에 나의 꿈은 외롭지 않다”

2학년 기호진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목적과 목표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부와 영예가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일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대들보’가 명예, 행복 혹은 사랑이 될 수 있다. 삶을 견고히 하는 목적의식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으며,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의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며 공동체적 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에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지 못한 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편승하여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추호도 고민하지 않으며 다수의 선택을 따라왔다. 부끄럽지만 본인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저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은 바닥을 보이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신이 맹목적으로 따라온 대중적 선택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합리하게 되돌아갈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의식이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하며, 이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선택,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본인이 영위하는 삶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어떻게 하면 자존심과 더불어 자존감도 풍만한 성숙한 생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은 생도로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생도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하며 김신 회고록을 읽었고, 김신 장군의 모습은 앞에서 설명한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였던 그의 가치관은 감히 내가 모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저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발버둥 치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태생부터 남달랐기에 생각하던 방식까지 달랐던 것일까, 혹은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수 많은 전쟁 영웅들 중 한명에 불과한 것일까.

민족성에 대해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 중 한 명인 ‘에르네스트 르낭(1823-1892)’은 그의 저서 『민족이란 무엇인가(출판사 : 책세상)』에서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을 때에만 자신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라고 저술했다. 김신의 영웅적 면모도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발현된 ‘민족성’의 일부였을까. 사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근현대사를 르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족적 특성이 그 자체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주체에 의해 민족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민족의 특성을 평가 절하한다. 또한, 르낭의 논리는 때로는 민족에 대한 다른 민족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에르네스트 르낭의 이론을 우리의 역사에 비춰보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김신 장군의 가치관과 신념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김신 장군에게서 어떤 면모를 배워야할까. 김신 장군은 자신의 꿈을 안신학교(소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근대 사립 교육기관) 4학년 때 갖게 되었다. 수학여행 비용이 3원이었으나, 그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못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용대 선생의 도움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며, ‘미림 비행장’을 견학하며 그의 원대한 꿈을 계획한다. 그가 미림 비행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비행사와 비행기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미림 비행장에 전열된 일본군 비행기들이 저질렀을 무차별적 대공습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제국주의에 대한 경멸과 분노가 섞여, 반드시 강한 항공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리라 다짐했다.

원대한 김신의 꿈은 공군참모총장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었고, 대한민국 공군 출신의 조종사를 대거 양성하는 데 성공한다. 그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위에 도달하기까지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지금처럼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단계나 조종사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신은 그의 가치관과 목표를 위해 인도로 향했다. 현재는 파키스탄 영토에 속하는

라호르 공군 기지에서 중국 훈련생들과 함께 비행 훈련에 입과하였다. 고국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지만, 라호르 지역은 무엇보다도 비행하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았다. 일교차가 매우 심했으며, 비행하는 주간에는 덮개 없는 비행기에서 훈련해야 했기에 입술이 말라붙어 들어질 정도로 더위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온 훈련생은 혼자였기에 나라 잃은 서러움을 외로이 삭히며 조종사로서의 꿈을 다져갔다.

조종사로서 조국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전에 광복이 되자 그 누구보다도 그는 기뻐으나,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조종훈련에 입과했기 때문에 그는 광복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원조를 위한 훈련을 끝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김신의 진정한 영웅적 면모가 빛을 발한다. 한반도에 암운이 짙어진 6.25 전쟁 당시, 그는 승호리 철교작전을 수행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미국 공군들이 고사포탄에 두려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폭파작전을 김신은 과감한 작전을 선택함으로써 승호리 철교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우리가 김신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무수히 많지만, 굳이 고르자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목표의식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생도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군인의 자세이다. 아직 공군의 장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공군 장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더욱 멀리 바라보며 어떤 장교가 될지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 주신 선열들이 있었기에 나는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회고록에 적혀있듯이, 김신 장군이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몸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순국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신 장군의 일대기는 공군 장교가 될 생도들에게 올바른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군인이 될 것이며, 개인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정을 우선해야 하는 존재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덕목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생도들의 가치관은 무엇보다도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단지 눈앞의 안위를 찾겠다고 다른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좇는다면 그건 군인의 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김신 장군과 같은 선열들의 치열한 꿈과 목표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생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꿈’에 대해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

## 나의 애(愛)

2학년 김규희

국가 존립조차 불투명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진 것이라고는 맨몸뿐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백범의 아들 김신 장군의 회고록인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망명지사의 어린 아들이 조국의 재건(再建)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치열한 생의 모습이 담겨있다.

하나의 개인이 국가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애(愛)의 마음을 갖기까지 어떤 순간을 거치는 것일까. 영웅(英雄)은 난세(亂世)에 탄생한다. 굴곡진 현대사의 수많은 난세 속에서 애국과 매국은 극명하게 갈렸다. 호국선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국가를 수호한 여러 명의 위인이 등장했다. 어린 젓먹이였던 김신은 전란 속에서 늘 죽음과 외로움이 함께였다.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 가정환경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던 할머니와 형님의 죽음, 그리고 가까이에서 항쟁하던 선열들의 순국까지. 그는 ‘백범 김구의 아들’이라는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한없이 버거운 숙명 속에서 스며들 듯 군인의 길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태극마크를 단 비행기를 몰며 조국의 하늘을 날았다. 피와 땀이 얼룩진 생애를 담은 회고록은 단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 같은 조국을 위해 분투했던 여러 사람의 생이 그들먹하게 고여있는 듯했다.

난세에 태어나지 않은 나로서는 이 존재들을 인식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나의 학창 시절은 평범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을 배우고, 지식을 머릿속에 육여넣었다. 나에게 역사는 지식일 뿐이었고 위인들은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단어로서의 조국을 체득한 뒤 이 한 몸 장렬히 국가에 바치겠노라 생도가 되었다. 그리고 생활은 뻘했다. 주어진 일과의 수행과 지침의 반복이었다. 나의 자부심은 바닥을 보였고 생각은 희미해졌다. 회고록 속의 일생은 생동감이 넘쳐서 마치 그들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충분했다. 이 인지의 순간 불현듯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그들의 살아있음이었다. 역사 속의 죽은 인물이 아닌 현실의 살아 숨 쉬는 정신으로. 글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닌 일어나 움직이는 일생으로. 나와 같은 나이, 비슷한 신체로 고통을 견디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빚어낸 이들의 삶을 보았다. 그의 애(愛)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죽음 바로 옆길에서 걸어간 그의 생은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생동감이 흘러나오는 것일까.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지기는 오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선열들의 분투를 경험하고 스며든 김신 장군과 같이 수년간의 배움은 나를 스며들기 충분하게 했던 것일까.

김신은 그의 전부였던 할머니의 죽음을 뒤로하고 어릴 적 무차별적인 일제의 폭격을 목격하며 조국의 하늘에서 태극기를 단 비행기로 조국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이루기 위해 중국의 공군군관학교(空軍軍官學校)에 입학한다. 미국 본토에서 비행 훈련을 받기 전 인도 라호르 공군기지에서 초등 비행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인도에서의 훈련을 마친 어느 날, 광복의 소식이 찾아왔다. 하지만 바로 고국으로 귀국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뜻대로 비행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간 그는 혹독한 비행 훈련을 마치고 1947년 9월 다시 조국의 땅 한국을 밟았다. 태극 마크를 단 비행기의 조종간을 잡고 조국의 하늘을 나는 것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환희도 잠시, 독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싸우던 동지들과 적으로 만나야 했던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동족상잔의 비극에 빠진 조국의 하늘을 날아야 했던 비극은 참담했다.

얼마 전 6·25전쟁 제71주년을 맞이하여 ‘영원한 빛’ 추모비에 참배하러 갔다. 6월 6일 현충일 참배와 함께 올해 총 2번의 목념이 있었다. ‘영원한 빛’ 추모비는 공군 창군 이래 공중 임무 수행 중 전사 및 순직한 공중근무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추모탑이다. 그날따라 고요함과 정적의 침묵 속에 391이라는 숫자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391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산화한 영웅들의 숫자였다. 그리고 나의 선배들이었다. 참으로 무거운 추가 발끝에 달린 기분이었다. 그날따라 태양이 아주 뜨거웠다. 맨 뒤에 서 있던 나는 오롯이 태양 빛을 받아내고 있었다. 아직도 선배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그들이 보던 조국의 하늘은 어떤 색이었을까. 그들이 지키던 조국의 하늘에는 어떤 애(愛)가 담겼을까.



경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오늘의 조국의 하늘은 무슨 색일지 궁금했다. 찬란한 햇빛 아래에 새파랗게 맑은 하늘이 보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하늘 아래 그 분투의 시간들을 증언하는 책 한 권의 존재는 조국의 하늘에 담긴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했다. 그들이 일구어낸 하늘과 조국은 이제 나의 몫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슬기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 『조국의 하늘을 날다』의 후기 마지막 장에 적힌 책 제목의 의미이다. 현실은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 캄캄하고 막막한 길에서 선열들의 분투를 보고 자란 어린아이가 절체절명의 순간 태극 마크를 달고 조국의 하늘을 날았던 것처럼, 여러 인생이 얼룩진 묵은 조국의 하늘을 보며 자란 작은 아이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이 노력들은 앞으로 같은 하늘을 지키게 될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조국의 하늘이 더 크고 아름다운 색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삶

2학년 차준호

‘조국의 하늘을 날다’ 이 책은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았던 책이다. 처음 일학년이 되어 선배들 방에 놀러 갔을 때 모든 방에 이 책이 있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알고 보니 학교에서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 한다며 독후감 쓰기를 추천한 책이었다. 사실 공군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당시 관심 있던 분야인 군인과 전투기 조종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어봤던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공군의 창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입학의 꿈꿨던 그때의 나에게 이 책은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힘든 1학년 시절을 지나 2학년이 되어 다시 읽어보니 지난번 때와는 다르게 글을 읽으면서 공군 창립 과정, 많은 전쟁, 항공기의 종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일부는 공감할 수 있었다. 아마도 나도 이제 공군의 가족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이 책은 김신 장군의 어릴 적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신 장군은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셨다. 김신 장군의 어머니는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어머니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김신 장군을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실제로 몇 번이나 고아원에 보내졌지만, 할머니께서 김신 장군을 매번 집으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김신 장군을 키워주셨기에 김신 장군에게 있어 할머니는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던 김신 장군과 할머니는 1925년 11월 귀국하여 안악에 정착하였다. 학교생활을 하던 도중 수학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김신 장군은 이 수학여행에서 비행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사실 수학여행은 비용 문제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 사실을 들은 김용대 선생께서 한밤중 김신의 집에 찾아와 할머니께 수학여행 비용을 드렸다고 한다. 평양으로 간 수학여행에서는 일본 육군 77연대 군사시설을 보았는데, 이는 일본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하기에 일본과의 국방력에서 꼴리진 않지만, 그때 어린 김신의 시선에서 일본군 군사시설을 봤다면 아마 경외감이 들었을 것이다. 김신이 가장 끌렸던 것은 일본 항공대의 쌍엽기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견학을 오자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종사들이 쓴 큰 안경도, 펄럭이는 머플러도 김신의 꿈을 키워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이 덕분인지 김신 장군이 참모총장이 됐을 당시 매년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송기에 태워 비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었다고 한다. 훗날 김신 장군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중 김신 장군은 한 승무원에게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육군 출신인지 해군 출신인지 공군 출신인지, 어디 출신 조종사인지에 관해 물어봤다고 한다. 승무원은 조종사에게 여쭙본다고 하였고 공군 출신이라고 하였다. 이 조종사는 이 얘기를 듣고 김신에게 찾아와 자신은 이때의 이벤트로 꿈을 키워 조종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멋있는 일화다. 만약 김용대 선생께서 김신의 수학여행 비용을 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장군을 잃는 것이고, 김신 장군이 이벤트로 비행의 꿈을 키워준 저 대한항공 조종사도 없었을 것이다. 가끔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먼 미래를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김신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인 김구 선생은 중국에 있었기에 못만 났던 것이었다.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오는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4월 29일 윤봉길 의사께서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기념 축하식에서 폭탄을 던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김신 장군의 아버지인 김구 선생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들과 중국 정부는 김구 선생을 매우 좋은 감정으로 대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에선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도 임시정부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반면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 김구 선생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다. 일본군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식들을 친일파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였던 것인데, 그렇기에 이들을 자신이 있는 중국 자식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경찰서를 통해 정식으로 여행 허가를 받으려 하였고, 그

경찰서에서는 해주에 있는 도청에서 여행 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집안 살림살이와 함께 짐을 너무 많이 싣 나머지 총독부 경무국에 붙잡혀 감금당했다.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니 일본 경찰은 안신학교 옆 기와집으로 이들을 이사하게 하고는 계속 감시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몰래 나올 수밖에 없었고 김선량 목사, 최창한 선생, 그 외 몇몇 분들의 도움으로 야간에 뒷문을 통해 탈출하여 아버지가 있는 중국으로 갔다고 한다. 자싱에 있는 정원이 딸린 2층 건물에서 몸을 숨겼는데, 얼마 뒤 아버지인 김구 선생이 할머니와 김신 장군을 보러 그곳으로 왔다. 김신 장군께서 9년 만에 아버지를 볼 수 있었는데, 겨우 걸음마를 뿔 무렵 헤어진 터라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를 뵈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된 자신의 운명이, 가족 간에 누려야 하는 따스한 감정마저 드러낼 수도 없고, 개인적인 고충은 철저히 숨기고 욕망 또한 억눌러야 하는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의 운명이 너무 가혹했었다고 한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에 엄마로부터 한 편지를 받았다. 학교 밖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말이다. 이후 지도 생도 선배들께서 우리 중 기초군사훈련 전에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전 일부 전염병처럼 몇 달 뒤면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입학식 때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다. 몇 년이란 기간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 가족이 그리웠었다. 학교에서 부모님과의 영상통화를 일시적으로 허가해주셨기에 전화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었지만 집밥을 못 먹는다는 게, 동생들이랑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함께 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힘들었었다. 하지만 어린 김신 장군께서 9년 만에 가족을 만나신 것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야 만날 수 있었다는 김신 장군의 예전 이야기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도 가족을 그리워하던 나의 모습과 비슷하셨던 것 같아 괜히 마음이 쓰라렸다. 내가 김신 장군의 입장이었다면,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소식만을 들으며 살아온 시간이 갑자기 떠오름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서 매우 행복했을 것 같다. 2학년 생활도 주말에 외박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관생도 및 군인들은 최근에 백신을 접종하기도 했고, 나라

전체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이 많이 늘었기에 2학기 때는 정상적인 외박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다.

김신 장군은 할머니와 함께 중국 내 여러 곳을 거치며 피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계신 충칭으로 향했다. 충칭에 도착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병세가 매우 악화되었다. 할머니께서 김신 장군에게 말씀하시길, “난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되거든 상하이에 가서 네 어머니 묘소를 찾아 유골을 모셔라. 만일 너무 오래돼서 뼈가 다 없어지고 흙이 됐다면, 머리가 있던 부근의 흙이라도 잘 싸서 한국에 가져다 물어라. 그리고 나도 똑같이 해 주어라.”라고 말이다. 이를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선 김신 장군을 여러 번 부르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중국의 허상산에 묻히셨고, 할머니의 유언은 10년 뒤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48년 평양에 다녀오신 김구 선생께서 김신 장군에게 묻힌 곳을 찾아서 빨리 유해를 찾아오라고 전하셨다. 당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였기 때문에 왕래가 어려워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948년 김신 장군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신 형님의 유골과, 이동녕 선생, 차이석 선생의 유골을 수습해 왔다고 한다.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김신 장군은 중국의 공군군관학교로 향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군사관학교였는데, 여기서 미국 자원항공대에게 비행을 배웠다고 한다. 왜 자원이나 하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돕게 된다면 전쟁에 개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소한 단어 하나가 전쟁 수행의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니 전쟁법과 외교 문제는 참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함께 실제 전쟁상황에선 우리 군인이 이런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곳 쿤민 비행장에서는 기초군사훈련을 6개월 받았고, 기초군사훈련 하는 동안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김신 장군은 말했다.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기초군사훈련은 1달 동안 받는다. 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동안 하루하루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버티곤 했었고 힘들게 이겨냈던 기억이 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구보에, 차렷 자세를 익히고, 사격, 총검술, 화생방, 행군 등 민간인의 군인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나 힘든 군사훈련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6개월이나 진행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웠다. 초등 비행 훈련은 중국이 아닌 인도 동북부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진행되었다. 영어와 생활 환경의 차이도 크게 작용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계와 친숙했던 미국인과는 달리 중국 사람들은 기계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에 바로 미국으로 가서 비행 훈련을 받으면 대부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인도에서 비행을 미리 배우고 미국 본토로 건너가 나머지 비행에 대해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한 뒤 조종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사관생도들이 212대대에서 처음 비행을 배우는 것과 달리, 민간 대학 학생들이 밖에서 비행을 배우고 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사회에 있는 내 친구 중 한 명은 한서대 항공운항학과를 다니고 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비행에 대해 배운다고 한다. 공군사관학교를 다니는 사관생도라는 것에 매우 만족하지만, 비행에 대한 교육을 일찍부터 받는다는 것이 조금은 부러웠다. 그렇기에 생각을 바꿨다. 나는 운전면허를 아직 따지 못했는데 원래는 4학년 때 생도대 내 운전면허 실습을 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 최대한 빠르게 운전면허를 따서 기계를 다루는 데에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나중에 전투기 조종할 때에도 편대 비행이 자동차끼리의 간격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들어서 운전면허를 언제 딸 것인지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해 볼 예정이다. 김신 장군께서 기차를 타고 인도로 가는 동안 중국인 동료와는 다른 관점에서 인도를 관찰하셨다고 한다. 인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한다. 관찰한 결과 영국은 인도를 매우 지능적으로 통치했다고 하는데, 교통경찰처럼 일반인들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일은 인도 사람들이 맡고 영국인들은 뒤에서 결정하는 역할만을 했다고 한다. 다른 예시로 관공서 창구 직원은 인도 사람이지만, 사무원이 서류를 준비해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영국사람이 가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두고 식민지 사람들과 최대한 맞닥뜨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영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식민지화되었기에 영국인들을 싫어하고 배척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앞에서 영국인을 만나는 것조차 못하니 인도 사람들도 아주 답답했을 것 같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을까? 일본은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 통치라는 세 번의 통치를 진행했다. 무단통치 시기에는 헌병 경찰 제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통치하였고, 이와 함께 독립운동가 색출 및 탄압, 법으로 판결하지 않고 경찰이 임의로 처벌하는 즉결 처분권, 한국인들에게만 태형 제도를 부활시켜 통치하는 것 등이 있었다. 문화통치 시기에는 민족 분열을 진행하려 하였다. 이는 친일파를 양성해 민족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려 한 것인데, 3.1운동 이후 조선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 같아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통치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조선인도 총독부에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앞에서는 존중해주는 것처럼 하였지만 뒤에서는 친일파를 길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었다. 1930년대에 진행된 민족 말살 통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려 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법 중 하나이다. 당시 일제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침략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때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해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일 민족으로 개조하려고 한 것이었다. 많은 문화를 없애려 하였는데, 전국에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이 매일 정오에 신사참배를 하며 황국신민 선서하도록 하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시키기도 하고, 언어적으로는 일본어의 교육 및 사용을,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민족성을 비하하며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였다. 영국의 인도를 향한 식민지 통치도 매우 비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통치 방법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니 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이러한 생각을 떠올린 적이 있었다. 뉴스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일개 학생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했었고, 저러한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기 위해 얼른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서 내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다. 이 생각을 원동력으로 삼아 힘든 고3 시절을 잘 이겨낸 것 같기도 하다.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넓은 곳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전투기 조종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가장 좁은 전투기 조종석에서 가장 넓은 우리 영공을 지킨다는 뜻이다. 한 책을 통해 접한 문구인데 아직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아주 멋진 명언이다. 다시 김신 장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김신 장군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미국 본토를 갈 준비를 하던 도중,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조국을 위해 이제 막 비행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말이다. 허무하지만 광복은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이미 미국의 군사 원조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에 미국으로 가서 비행 훈련을 계속 받게 되었다. 사실 김신은 독자이기에 미국의 비행 훈련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비행 훈련 도중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자인 경우 원한다면 비행 훈련을 그만두게 해주었다. 그렇기에 아버지인 김구 선생께 편지를 써 이제 광복이 찾아왔으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는데, 나라가 수립돼도 항공 인재 양성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공부를 더 하고 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한국으로 돌아와 조국의 광복을 느끼고 싶고,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였으나, 막상 다시 돌이켜 보면 아버지인 김구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회상하셨다고 한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이라 많이 걱정되었을 테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만을 위해 저 먼 나라로 비행 훈련을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비행 훈련을 받으러 가기 전 한국인이기에 미국 입국을 위한 신원 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와 같이 일본에 대항에서 싸운 집안이다. 문제 삼지 말고 보증을 하라’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다행히 김신 장군께선 미국에서 비행 훈련을 마칠 수 있었으나, 국적 때문에 문제가 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설움이 컸다고 한다. 나라가 없어 다른 군에 속하여 또 다른 나라로 훈련을 하러 가야 한다니... 당시 김신 장군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나라가 없으니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더 열심히 비행 훈련에 임했을 것 같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국가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대표로 비행을 배우는 만큼 더욱 후대를 위해 노력했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인 김구 선생은 방북을 결심하셨는데, 당시 이승만 박사는 남쪽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고, 김구 선생은 이를 두고 이럴 거면 독립운동을 왜 한 것이냐며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시 이승만 박사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친일파 세력들을 모은 뒤였고 이미 북쪽도 공산 통치 기반을 다 닦아 놓은 상태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김구



선생은 방북하여 김일성을 만났고 남쪽 대표로 연설하였다. 연설 내용으로는 남쪽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는 것과, 북쪽의 단독정부 수립 또한 반대함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남쪽 단독정부 수립 반대의 내용을 말할 때에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다고 한다. 그러나 북쪽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우리 동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외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고 한다. 이를 보고 김구 선생께서 통일 정부 수립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미 북쪽도 북쪽 나름의 단독정부 수립을 꾀했다. 김구 선생이 북에 오래 있을수록 사람들은 김구 선생이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해 남쪽에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김구 선생은 남으로 빠르게 복귀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국사를 배울 당시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 남북을 하나로 합칠 수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김구 선생께서는 나의 이런 생각과 같이 방북까지 하시며 실행에 옮기셨지만 이미 북쪽과 남쪽의 세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찌 됐든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었다는 점에서 김구 선생을 굉장히 존경하고 남북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 남북한은 서로 언어도 달라졌고, 생활면에서도 많이 달라졌다. 북한말을 이해하려면 단어를 따로 배워야 할 정도로 말이다. 그렇기에 통일이 되려면 많이 힘들겠지만, 과거부터 한민족이었기에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신은 중국으로 가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오고 임학준 선생의 둘째 딸과 결혼을 하였다. 이후 김신은 한국으로 돌아와 국군에 입대하였다. 그전까지는 남조선 국방경비대였으나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국군이 출범했다. 김신은 육군 항공대로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훈련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어 바로 소위로 임관했다. 항공대에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두 공간 L-4와 조금 더 빠른 L-5가 있었는데 김신은 이 비행기들에 있는 미군 마크를 태극 마크로 바꾸고 태극 마크를 단 비행기로 신나게 비행했다고 한다. 비행을 하던 도중 한강 다리 밑으로도 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군법으로 따지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에 한 달 비행 정지를 당했다는 웃픈 과거도 있다. 사실 내가 태어난 2001년에는 이미 우리 공군은 자리를 잡고 태극 마크가 달린 비행기를 운용하였으나 그 당시의 비행기에 있는 태극 무늬는 처음이고 낫선 존재였을 것이다. 또한 외국 교관분들의 비행

수업을 들었을 테니 언어가 달라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후대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신 선배 조종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남과 북을 합치려던 많은 시도를 하던 중 김구 선생은 암살을 당하셨다. 남쪽 단독정부 수립을 간절히도 원하던 친일파들이 계획한 암살이었다. 사실 암살되기 전 김구 선생께서는 암살계획에 대해 알고 있으나, 할 일은 해야 한다며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다. 이후 김신에게도 많은 견제가 있을 것이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김신을 해외로 유학 보내려고 하셨고 김신은 이를 거절하다가 하나의 테스트를 받게 된다. 한 청년을 통한 시험인데 그 청년은 김신에게 다가와 자신은 김일성 장군이 시켜서 왔고, 이승만을 죽이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김신은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였다. 며칠 뒤 그 청년은 말끔한 차림새로 다시 왔는데, 그 청년을 체포하러 온 정보 계통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면서 그들이 서로 웃는 모습을 김신은 봤다고 한다. 정보 계통 사람들이 꾸민 공작이었던 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 이 공작을 주도한 사람인 김창룡은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의심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지금에서야 오래 지난 이야기이지만 내가 김신처럼 나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김신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외로 가려고 했으나, 고국에서 버림받고 밖으로 나가면 좋을 것이 없다는 피치 박사의 조언 덕에 국내에 남아있기로 했다고 한다. 김신은 이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인천으로 가던 중 6.25 전쟁이 발발했음을 알게 되었다. 급히 공군 본부로 불려가게 되었고, F-51 전투기를 탈 기회를 얻게 되었다. 조종사들은 일본으로 가 미국의 무스탕 10대를 가지고 한국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일본으로 가서 비행을 배우려는데 비행을 가르칠 교관이 10년 전에 미국에서 훈련받고 최근에는 거의 비행을 하지 않은 교관이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김신은 예전에 교육받을 때 갖고 있던 미국 조종 훈련 매뉴얼을 교관에게 드리고 비행 훈련을 시작했다. 미군 전투기를 제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몇 달에 걸쳐 훈련해야 했지만 딱 일주일만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한다. 상황이 급했으니 빠르게 훈련을 받아 전쟁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공군은 큰 활약을 보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승호리 철교를 차단하는

작전이였다. 이 작전은 내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때 읽었던 ‘나다, 유치곤: 전설이 된 빨간 마후라’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던 사건이다. 이 책에서는 유치곤 대위가 승호리 철교를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는데, 유엔 공군이 500소티 이상 출격하여 이 철교를 폭격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는데, 이 철교를 폭격하기 위해서는 낮은 고도로 내려가 폭탄을 투하한 후 급격히 위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외 조종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의 작전을 수행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미군 조종사들은 작전 수행과 상관없이 100회만 출격하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가까이 접근하기 힘들었다. 그렇기에 우리 공군에게 임무가 내려졌고, 단 몇 회 만에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 4천 피트 상공에서 강하해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펼쳤고, 이 결과 철교는 물론 주변 대공포 진지, 병커, 건물 등을 파괴하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과연 이러한 작전 성공이 단순히 한국 조종사들의 비행 실력이 미군이나 유엔 조종사의 실력보다 뛰어나서 작전이 성공했던 것일까? 아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승리하고자 하는 뛰어난 집념과 자기 가족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희생정신이 동반되어 있었기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작전을 성공했던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을 생각하며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다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짐했고, 존경심을 표할 수 있었다.

전쟁하던 도중 김신이 맡은 흥미로운 임무가 있었다. 비록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작전은 검은 고양이를 훔치는 것이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김정렬 장군이 김신에게 미국에서 올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었는데, 얼마 뒤 미국에서 온 그 사람은 미그-15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어를 도청하면서 미그-15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미그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미국은 미그-15기를 훔쳐 오기로 계획했다. 계획은 누군가 그곳 기지에 침투해서 전투기를 훔쳐 오는 계획이었는데, 동양인이면서, 전투기 조종도 가능하며, 중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김신이였다. 그 미국 사람은 처음에는 ‘시골 창고 속에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걸 가져와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없게 설명했지만, 김신에게

일부 다짐을 받고 위의 계획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그 후 이는 최고 군사 기밀이기에 누설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 때문에 김신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가서 미그기에 관해 공부하고 오라는 임무를 맡았고, 이를 위해 밤낮으로 끙끙거리면서도 아내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밀 작전 대기 상태로 지내는 동안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계속 대기하던 중 북한 공군 노금석 씨가 미그-15기를 몰고 귀순하여 이 임무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미국은 미그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이런 임무를 생각해냈던 것인데 그때 만약 임무를 수행했다면, 그 임무에 성공했다면, 혹은 실패했다면 우리가 알던 역사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어도 할 줄 알면서 전투기 조종을 할 줄 알았던 당시의 김신 장군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나도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일본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복습하고 때로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나중에 전투기 조종과 함께 공군에 기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신 장군은 이종찬 장군의 추천으로 공군참모총장 직에 있었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얼마 뒤 그 쿠데타는 성공했다. 이후 중국군 출신들은 배제되고, 일본군 출신들이 지휘권이 있는 요직을 모두 차지하였다. 김신은 공군은 조종사 출신들이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작전 시에 전투 조종사에게 명령을 내려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데 조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전투기 내의 상황에 대해, 전투기 기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임무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신은 공군참모총장이 되면서 비행기 한번 타 보지 않은 사람들을 청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공군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공군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유용하게 쓰는 것도 군인의 애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신 장군은 이전 총장들과 다르게 임기를 마치고 집에 있던 경호 사병, 운전병, 자동차, 군대 전화 등을 모조리 공군 본부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높은 계급에 올라갈수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들을 모두 마다하고 신념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일부는 김신 장군을 원망하고 원한을 품었지만 수많은 젊은 장교들이 이를 지지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존경의 뜻을 표해오는 일이 있어

흡족했었다고 한다. 나 또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 사람을 지휘할 지휘관이 될 것인데,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안주하지 말고 공군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김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후 박정희 장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들은 전부 해외 대사로 발령 났다. 자신의 계급보다 높은 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김신 장군도 타이완 대사로 부임했다. 김신 장군은 대사로 타이완에 부임하기 전에도 여러 번 타이완에 방문했던 터라 장제스 총통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후에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닉슨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이때 장제스 총통이 김신을 통해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김신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기에 부탁할 수 있었고, 미국은 장제스 총통을 공산당의 바다에 갇혀 있는 중국 사람들의 희망의 등대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장제스 총통에게 전해 줄 수 있었다. 장제스 총통의 경우 커지는 중국을 보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한국과 미국을 믿으며 버텼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 때문에 민정이양을 고려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민정이양 관련 소식을 접한 장제스 총통은 김신을 불러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자신은 지난 50년 동안 중국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제 막 제대로 잡혀가려는 때에 그만두려고 하는 것은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지지한다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어 갈 수 있으니 무조건 민간으로 정권을 넘겨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는 제3자가 보면 심한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장제스 총통은 한국을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상황이라, 김신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애정이 있었고 이를 박정희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조언을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건 없는 민정이양을 접었다.

사실 장제스 총통의 조언 외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이유가 있는데 이는 바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군사원조를 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 한 것인데, 계속 군사 독재 정권을

이어나가면 미국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가뭄으로 식량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다. 식량 수급을 해결하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처지가 난처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김신 장군은 타이완에서 식량을 들여올 수 있느냐는 박정희 대통령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타이완에서 타이완 봉래미 구매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수송 문제는 타이완군의 도움을 받았다. 그 덕분에 김신 장군은 이 식량난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김신은 8년간의 대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해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다. 너무 특이한 제안이었기에 당연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떨어졌다. 이후 김신 장군은 교통부 장관 자리를 맡게 되었다. 김신 장군은 기차를 타고 전국의 역을 돌아다니던 중 38선 근처 철도종단점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곳 표지판에 철도종단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젠간 철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보니 철도종단점이라는 말은 너무 비관적인 것 같아 철도 청장을 불러 이름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 후에 이 역의 표지판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적혔다고 한다.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김신 장군의 생각과 같이 언젠간 철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언젠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다음은 외교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1987년 김신 장군은 정보 계통의 비밀스러운 연락을 받고 타이완으로 떠나게 되었다. 가족에게도 정확히 말하지 않고 타이완으로 갔는데, 김신 장군이 부탁받은 일은 타이완 장징궈 총통과 최고위 인사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경위는 김만철 씨 일가의 탈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철선을 타고 북한을 떠나 동해를 향해하던 중 일본 앞바다에 도착했다. 일본은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는데 한국으로 망명 시켜 주자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일본어선 선장 때문에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망명에 소극적으로 되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 방법이 타이완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이완 정부가 외교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상태였는데 이를 설득하기 위해 김신 장군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김신 장군은 장징궈 총통 및 타이완 최고 지도부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 일행은 일본에서 타이완으로 간 후 대한항공을 통해 남한에 도착했다고 한다. 김신 장군의 외교가 빛을 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신은 외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외교란 외부로 알려지는 공식적인 무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과 설득이 이뤄지며 중요한 일이 성사될 때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부름에 응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김신 장군의 생각이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존재이다. 나 또한 장교가 된다면 국가의 부름의 최우선으로 응하는, 국가를 위해 한 몸 바칠 수 있는 유능한 장교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외교 외에도 김신 장군은 중국 공산당 간부와 만나 한중 수교를 위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에 크게 이바지를 하셨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위대함과 함께 김신 장군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독립운동부터 주변 국가와의 깊은 외교 문제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셨기 때문이다. 김신 장군께 감사함을 느끼지만 한 편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김신 장군의 뛰어난 중국어 실력, 동료들과 후배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멋진 지도력, 다양한 작전을 성공시키는 화려한 조종술을 보면 내가 능력을 갖추어야 나라에 이바지 수 있음을 느꼈다. ‘공군 장교지만 무능력하다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남은 3년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었다. 국민의 혈세로 학교를 다니는 만큼 학교생활을 잘 헤쳐나감과 동시에 자기 계발을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말이다. 물론 자기 계발 외에도 동기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고, 훈련받으면서 밖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큰 배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참고, 내가 힘들어도 국민을 위해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임관하면 매우 힘들다는 조종훈련을 받는다. 그 기간 동안 비행에 관해 공부하고 조종술을 익히면서 세상과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정식 조종사가 되어서도 언제 어디서든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하니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 그렇지만 소중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그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하기에, 내 손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기에, 특별한 기술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에 더욱 마음이 간다. 이렇게 앞날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공군사관학교에 오기 위해 노력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이 책을 읽을 당시 ‘내가 사관학교에 합격해 김신 장군처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나에게 헌신할 기회라도 줬으면 좋겠다’며 공군사관학교에 대해 간절함이 있었다. 또한 선배들의 기초군사훈련 영상을 보면서 제발 합격해서 저 훈련을 받고 싶다고까지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몸과 정신이 힘든 나머지 간절했던 나의 과거를 잊고 한눈팔 때가 가끔 있었다. 그렇지만 생도 생활을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사관생도들은 공군 장교라는 꿈을 꾸는 학생들이 밟는 첫 번째 문턱이다. 그렇기에 첫걸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훌륭한 군인으로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 목표 몇 개를 설정하였다. 우선 일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한미일 동맹을 맺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영어를 배우지만 이에 비해 일본어는 흔하게 배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일본어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예전에 누군가가 우리와 안 좋은 역사를 가진 일본의 언어를 왜 배우려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과거를 위해서라도 일본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로부터 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투기 조종을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있어서 항공력의 중요성은 세계 대전을 통해 증명되었다. 내가 전투기 조종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전투기 조종사가 될 것이다. 우리 기수는 임관하여 조종사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한 kf-21을 탑승할 것이고, 새로 만들어진 전투기이기에 전술개발이나 비행 기동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들었다. 위에 글을 보면 선배 조종사분들이 한국에 항공 지식을 전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셨으니 나도 후배들을 위해, 우리 영공의 수호를 위해 kf-21을 완전히 연구하여 공군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아직 생도 생활의 반 밖에 오지 않은 시기이다. 힘들



때도 있지만 가끔 내 책상에 붙어있는 자기사명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기초군사훈련 때 쓴 것인데, 다음은 나의 자기사명서 중 일부이다. ‘공군 장교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이제야 공군사관생도라는 문턱에 도달했다. 기초군사훈련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으나 동기들과 함께해서 버틸 수 있었고 부모님, 형제, 친구들의 응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필기, 실기, 논술, 면접을 통해 선발되어 조국 영공을 수호할 기회를 얻었으니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이 자기사명서와 같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쳤다고 힘 빠진 소리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 생도 생활 4년의 습관이 군 생활 평생을 좌우한다고 들었다. 쉬는 시간에 놀고 장난만 치는 생도보단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뛰어난 생도가 되어야겠다. 이 책을 통해 나의 생도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나의 지난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새롭게 이어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강인한 자여 조국의 푸른하늘을 받들라

1학년 김재형

뛰어난 사람과 일반인을 결정하는 것은 한 번의 선택의 차이로 갈린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인생을 완성한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나의 시간과 동기들의 주어진 시간의 양은 똑같지만 그가 가진 시간과 나의 시간의 흐름은 절대 같을 수 없다. 책 ‘조국의 하늘을 날다’는 김신 장군님께서 겪으신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그가 내린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만의 이야기이다. 위에서 말했던 흐름이 다름의 진정한 의미는 곧 모든 인생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움의 자세로 이 책을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1922년 9월 21일, 중국 상하이, 아버지 김구와 어머니 최준례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극도로 쇠약하신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이 죄송했던 마음에 산후조리도 다 끝나지 않은 채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갈비뼈가 폐를 찔렀다. 아직 젖먹이인 ‘나’의 육아를 단념하라는 말을 남기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 번의 보육원 신세를 졌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가 데려와 주셨다. 또래 아이들보다 적은 보살핌과 항상 감시받는 상황 속에서 이름을 바꾸며 과일 껍질로 처음 과일을 맛보고 한 옷으로 한겨울을 날 정도로 고달파도 그는 할머니의 기도와 변하지 않는 독실한 믿음을 보며 자랐다. 시간이 지나 안신학교 4~5학년 때, 선생님께서 내주신 돈으로 간 수학여행에서 분명 일본은 그들의 위용을 자랑할 속셈이었지만 ‘나’는 희망의 싹을 키웠다. ‘펼쳐이는 머플러에 커다란 안경을 쓴 비행사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놀라움과 충격 그 자체였다. 나는 결심했다. 비행사가 되리라!’

일본 정부의 심해진 감시로 아버지를 따라서 넘어간 충칭에서 할머니의 병세가 심해지고 민가와 공장에서 내뿜는 석탄 연기 탓에 형님은 폐병을 앓았다. 머지않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설상가상(雪上加霜) 형님은 안타깝게도 광복이 되기 5개월 전에 할머니를 따라가셨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첫 번째의 실패를 딛고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6개월간의 기초 군사 훈련, 인도 편자브 지방의 라호르에서 불별더위를 견디며 배운 비행 초급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기 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들었다. 금방이라도 조국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조국의 미래를 더욱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미국으로 넘어가 2년 6개월 동안 발동기학, 기상학, 불시착 등 중급, 고급 비행 훈련까지 모두 마친 후에야 조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승만 박사의 정읍에서 남쪽만의 단독정부 수립의 필요 발언에 아버지는 남북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하시면서 북으로 가시겠다고 하셨다. 회의 중에서 아버지는 당당히 남쪽의 단독정부를 반대하지만 북쪽의 단독정부 또한 반대하며 민족주의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굳히셨다. 반응은 당연히 앞선 말에 나왔던 박수가 무색하게 고요해졌지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서 물러설 곳을 두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맡아 웅진 일대에 조사하러 나간 사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상공에서 본 경교장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코끝이 뜨거워 와짐을 막을 수 없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통합을 꿈꾸셨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도치 않게 많은 적을 두었다. 암살 계획 소식에도 자리를 지키셨던 아버지는 결국 손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후 정보 계통 사람들의 감시는 심해졌고 나중에는 북한 간첩으로 위장해 '나'를 시험해보기도 했다. 또한, 배려의 마음이든지 견제의 의도였든지 영국으로 나가 더욱 공부하고 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은 나를 가만히 놔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조국을 그리 쉽게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와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몇 달의 훈련을 일주일, 실제로는 나흘 정도만 받고 실전에 투입되었다. 비행기 조종석과 똑같은 계기판이 있는 방 안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고 미군이 내준 비행기를 가져오는 인수 비행도 여러 번 수행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을 알지 못하는 미군이 피난민을 향해 폭탄을 퍼붓고 총을 발사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몰라라 하는 장교들은 전쟁의 훨씬

참담하고 비극적인 작은 단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군은 출격 횟수가 중요할 뿐, 위험을 무릅쓰고 폭격할 이유가 없었기에 한국 공군이 임무에 배정되기 시작했다.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으로 과감성과 용기를 가진 한국 공군의 힘을 보여주었다. 나중에는 부대에서 지휘하기보다 조종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직접 비행을 함께 나갔다가 결국 본부로 근무지가 바뀌기도 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새로 들어온 민주당은 내부 분열로 혼란스러운 정치를 이어갔다. 결국, 박정희는 오랫동안 준비한 쿠데타를 일으켰다. 서울 시내를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었고, 초반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던 미군이 쿠데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진압 작전 또한 무산되자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나’는 조종사 출신 지휘관들로 공군 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부정부패의 관습들을 폐지했다. 이후 타이완 대사로 발령받아서도 외교 사안, 업무 대처 방법 모르고 부임했으나 군시절 미군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었던 언어의 장점을 바탕으로 장제스 총통과 각국의 정치에 조언을 구하며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한중 우호 조약 체결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한 학교설립, 유학생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교통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내며 청렴결백과 조국 헌신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했다. 모든 임기가 끝나고서는 초대 독립기념관 이사장을 역임한 뒤 백범 김구 선생기념사업회장, 백범기념관 관장으로 일했다.

책을 읽으며 느꼈던 김신 장군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힘은 그가 가진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말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훈련을 받으며 영어 및 미군의 문화까지 섭렵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오는 넓게 펼쳐진 시야와 게다가 당시 몇 안 되는 조종사로서 가지고 있던 기술력은 전문성이 왜 공군 핵심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새로운 비행 교육을 받는 데 밀거름이 되고 타이완 대사로 지낼 때에도 좋은 바탕이되었던 그의 전문성은 그를 더욱 빛나고 조국을 빛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두 번째 힘은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다. 자식 아끼는 마음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 크다는데 ‘나’를 보육원에 맡겨달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했을까,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고 글도 모르셨지만, 원로의 위치셨던 이동녕 선생, 이시영 선생께 전혀 기죽지 않고 할 말을 다 하시면서 두 분을 꼼짝 못 하게 만드신 ‘할머니’,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에도 집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지금의 길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었을까, 아들보다 동지를,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민족통일의 꿈만을 크게 그리시던 김구 선생은 얼마나 아들을 걱정하고 아꼈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담대하게 나섰으며 이겨냈다. 역경은 힘들고 고난은 고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 편한 것만을 찾는 시대에 점점 잃어가는 굳센 정신력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우리 공군사관생도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 아닌가 반성한다.

세 번째는 김신 장군이 가졌을 절실함, 절박함의 마음이다. ‘의사는 기가 막힌 듯 말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이 대목을 보며 나는 질문의 대답을 찾고 싶었다. 타지의 고된 훈련 중에서 떨어지는 폭탄 가운데서도 죽으면 안 되는 이유,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마음 깊이 가진 절실함 때문이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움, 맑은 눈을 가진 내 아이에게 지금의 미래를 떠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내 주변 사람들만은 꼭 지키고 싶다는 그 절박함이 넘어져도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 것이다. 물론, 절실한 기도가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누구보다 절실하고 간절히 원했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노력을 멈추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김신 장군의 선택의 뒷받침에는 리더십이 있다. 책에서 장제스 총통이 부정부패 관리에 대해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그의 리더 철학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도고일장(道高一尺), 마고일장(魔高一丈)’ 즉, ‘선비의 수양이 한 자 높아지면, 그에 따른 유혹은 한 길이나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부패 척결이란 이렇게 어려운 법이니 여간 비상한 노력으로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후 장제스 총통은 “일이란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잘 판단하고 설득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더불어 김신 장군이 한국 전쟁 중 부하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지휘 및 교육의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함께 위험한 전쟁터 하늘을 가르며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길 때 그의 아래에 있던

조종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해 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야 말로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라고 마음에 새긴다.

책을 두 번째 읽고 난 후에 나는 책 제목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단순히 영공을 수호하는 뿌듯함의 감정만을 떠올렸던 과거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인도에서 첫 단독비행을 완수했던 것처럼, 미군이 철수하면서 넘겨준 비행기의 미군 마크를 수정해 태극 마크를 그리고 서울 주변을 비행하며 한강 다리 밑을 그대로 통과했을 때는 말로 형용 못 할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스스로 대견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 조국의 땅에 폭탄을 실어다가 떨어뜨리고 돌아올 때는 연기로 가득 찬 하늘을 보며, 아니면 육지의 비극과는 다르게 너무 맑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또 나중에 수송기예다가 많은 초등학생을 태우며 인천 상공을 돌아 여의도를 거쳐 돌아올 때는 자신의 어린 적 기억에 풋풋함이, 미래를 생각하며 작은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수많은 감정으로 그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왔다. 그를 따라서 나는 어떠한 생도, 조종사, 장교가 되어야 할까?

신원식 장군은 전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완과 불충을 후배 전우들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모두가 평화를 말할 때, 묵묵히 전쟁에 대비하십시오. 모두가 평화통일을 노래할 때 북진통일을 준비하십시오. 통일의 과정이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그 완성은 총구로부터 나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그 평화를 소중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신 선배 전우님들을 닮아 작은 고난과 시련에 나약함을 보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명예와 열정을 생도의 마음에 새기고 세계를 이끌어갈 장교의 가슴에 묻어, 가끔은 외로워도 때때로 지쳐도 절박함을 가지고 일어서는 조국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굳건히 다짐한다.

##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를 바라보다

2학년 곽승현

김신 장군은 독립운동가 김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로 유명하여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우선 필자는 김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삼았고, 실제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소서에도 그렇게 적었다. 그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육청에서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주최한 역사 탐방 캠프였다.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거처들, 김구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거처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었다. 몇 곳을 가면서 든 생각은 그동안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하루라도 맘 편하게 살 수 없었다. 급작스럽게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긴급통로를 준비해야만 했고,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김신은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김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3~4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이처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위해서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가볍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책을 통해 알 수 있듯, 김구의 아들 김신은 독립운동가를 아버지로 두면서 어렸을 적부터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민족의 지도자이자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는 김신에게 많은 신경을 쓸 수 없었고, 김신은 할머니와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폭탄테러사건이 김구가 주도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김구의 가족은 집중감시를 받게 되며 중국 여기저기를 떠돌게 된다. 김신이 어릴 적 김구의 편지 풀 냄새를 맡아보며 아버지 김구의 향기를 떠올렸다는 내용은 필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필자가 김신이었다면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많이 원망했을 것만 같다. 독립운동은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한시도 걱정을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만드는

가혹한 일이다. 김신은 할머니가 자신한테 어머니이자 전부였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매일 할머니 산소에 갔다고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김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아버지는 일본에 끊임없이 쫓기고, 자신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치의 방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아버지를 분명 한 번쯤은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신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위인이 되었다. 김신의 업적을 책에서 볼 때마다, 그 힘든 과정을 딛고 그의 아버지처럼 대한민국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에도 아버지의 명에 따라 계속 공군 장교로서 자질을 갖춘 뒤, 이후 6.25 전쟁에서 김신은 1951년 1월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 공군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의 젊은 시절 유일한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 뒤 우리나라 군인이 돼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를 보며 필자는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로서 자부심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필자의 선배님들은 태극기가 달린 비행기를 대한민국 영공에서 조종하고 싶다는 그 신념만으로 목숨과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바쳐가며 끝끝내 이뤄내셨다. 그런데 필자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들의 업적을 잘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끄러웠다.

이 책을 읽고 필자는 ‘그들의 노력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그들’은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준,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공군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맑은 하늘은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존재한다. 이 노력을, 그들이 조국을 위했던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이 떠올리고 이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야만 그들의 희생은 보상받을 수 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지금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전해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은 우리의 숙제를 언급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것은 김신의 유일한 꿈이기도 한 평화통일이다. 김구가 유일한 소원이 대한독립이라고 했듯이, 김신은 유일한 꿈은



평화통일이라고 말하며, 그날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가 된 조국의 하늘을 날고 싶다고 말했다. 한때 같은 적에 맞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던 동지들이 지금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경계한다는 건 너무도 슬픈 사실이다. 현재 38선의 존재로 인해 남과 북은 서로에게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에게는 많은 아픔을 안기고 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 어떤 곳보다 멀게 느껴지는 북한과의 평화로운 관계 형성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당장의 통일은 분명 어렵겠지만, 남과 북은 타협점을 찾아가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은 민족적인 문제로 국가가 정책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이 남과 북의 차이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뽑고 있으며, '차이'는 실제로 통일의 큰 걸림돌이다. 차이로 인한 문제는 개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분단 이후 70년의 기간 동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과 북의 다름과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평화적 통일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배우고 익혀 언젠가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칠 필자도, 그 하늘이 하나 된 조국의 하늘이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 뉴노멀 시대의 공군사관생도는 하늘을 날 수 있을까

2학년 김영건

“언제나 사(私)보다는 공(公)을 우선시하라.” 이는 김신 장군이 그의 평생의 삶의 지침으로서 삼은 백범 김구 선생의 가르침이다. 1922년 출생한 그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태어났다. 그 시절은 황무지에서 밭을 일궈내는 듯한 고통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끌어 낸 때이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으로 평생을 살았던 김신 장군은 언제나 붙잡힐지 모르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사(私)보다는 공(公)을 우선시하라.”라는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대도 지나가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어느덧, 4차산업혁명 시대와 뉴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도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현 세대에겐 그저 역사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신 장군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과 국가 발전의 간절함은 지금의 청년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다. 잃은 적이 없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아픈 적이 없기에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한 행복을 모르는 청년들에게는 공(公)보다는 사(私)적인 이익에 대한 욕망과 끊임없는 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슬프게도 군(軍)이다. 뉴노멀 시대라는 말이 현시대를 정의하는 단어로써 주어지자, 세상은 변화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강박 하에 과거의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한다. 과거의 산물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군(軍)은 변화에 있어서 세상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남아있어야 할 부분조차 바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임박하여 있음에도, 군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줄었으며, 이조차 불평하며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상당하다. 이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다수의 젊은이는 애국심은커녕, 국가에 대한 적대심을 품으며 방역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 짧은 복무기간마저 축소하자, 내 젊음을 왜 군대에 바쳐야 하나, 여성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혜를 달라 등과 같은 수없이 많은 변화의 목소리 속에서 애국심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70년이라는 전쟁의 공백 기간은 한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긴 시간이지만, 역사의 시각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의 평화에 익숙해진 지금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작 수십 km 앞에 전선을 두고 있음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항상 심중에 두며 살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국가의 의미와 그 소중함에 대해 매번 되새겨야 한다. 모든 국민은 현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전 장병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기반으로 어떠한 강제성 없이도 군인으로서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정예공군 장교를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공군사관학교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와 뉴노멀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에 결점이 존재한다. 최근 공군사관학교에는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토론 수업을 추가하였고, 항공 우주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캔위성, 드론, RC비행기 등의 창의공학설계 수업을 개설하였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리더 양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여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밤낮없이 일하는 백성들에게 글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서책을 무료로 배포하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까. 당연히 본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약간의 여유를 주어야 그것이 제 기능을 할 것이다. 생도대 또한 마찬가지다. 기존의 뻘뻘한 일과 속에 제아무리 좋은 수업들을 만들어서 듣게 한들, 그것은 오히려 기존의 일과의 수행률조차 떨어뜨리는 독이 된다. 아무리 토론이 중요하다고 한들, 전문 토론 강사가 아닌 일반 교수에게 토론 수업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유튜브에 토론을 검색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못하다. 빠르게 바뀌어 가는 시대와 인재상에 생도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독서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변화하기 위해선 그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사관학교는 그 기본이 탄탄한가.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생활이나 생도 상호 간 교육에 있어서 여러 변화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는 그 변화의 과도기에 있기에 여기에도 결점이 존재한다. 생도대 내부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생도 상호 간 교육의 권리가 점차 축소되고,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악폐습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라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교육권이 축소됨에 따라 생도대는 점점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다. 선후배 간에 악폐습을 줄이기 위해 선배의 교육권을 축소하고, 후배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생도 간 교류가 줄어들고, 끈끈한 소속감 또한 희미해지고 있다. 같은 중대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도 서로 어떤 사람인지는 물론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이름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3군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갔던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도대 문화가 자리잡혀 있는 듯 보였다. 선후배 간에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모습이 웬지 우리와 대비되어 굉장히 부러웠다. 그렇기에 단순히 없애고 줄이는 것만이 변화를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에 충실함과 동시에 그 틀 안에서 자유로운, 선후배 관계로서 항상 서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전우가 될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현재 생도를 과거의 생도와 비교해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조국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염원은 한참 부족하다. 또한, 과거의 고된 생도 생활과 높은 강도의 훈련도 지금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현시대의 공군사관생도는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우리가 날기 위해선 우리만의 강점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4차산업혁명과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해내고자 욕심부리지 않아야 한다. 전쟁을 겪은 적은 없지만, 나라를 잃은 적은 없지만, 지금의 생도들도 각자 저마다의 애국심을 품고 있다. “언제나 사(私)보다는 공(公)을 우선시하라.”라는 김신 장군의 신념처럼 각자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현시대에 어울리는, 국가를 위한 정예공군 장교로 거듭날 때이다.

##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

2학년 박 찬

이번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를 통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시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선구자로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김신 장군의 자서전을 읽을 수 있어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 중에 한 분인 김신 장군의 인생의 일대기를 글로 접하며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값진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독립 운동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었고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다는 점을 느꼈다. 나도 생도 생활을 하면서 기초군사훈련과 같은 힘든 시기를 이겨냈고, 그 외에도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으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에 밀도 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평소에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부끄러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운 날씨에 군사훈련을 받고 땀뻑한 일과를 수행하면서 불평을 했던 내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나의 힘듦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앞으로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위주로 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 글을 전개해나가려고 한다.

김신 선생님께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길에서 자신의 형과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슬픈 일을 겪으시고,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는 아버지까지도 돌아가시는 이루 말하기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시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난 중에 겪은 할머니와 형님의 죽음은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한동안 대낮에도 캄캄한 밤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죽음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라고 표현하셨다. 이 사례에서 그 당시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슬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형님인 김인 선생님께서는 병세가 심해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구하기 쉬운 약인 페니실린을 도저히 구하지 못해 돌아가셨다. 이에 대하여 김구 선생님께서는 같은 병으로 죽은 동지들이 많은데 아들만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약이 있다면 충분히 병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병으로 인해 자신의 큰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생각하면서 내 마음도 아팠다. 내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독립 운동가 분들의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일제 강점기로부터의 해방 이후,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과 북을 하나로 합쳐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백범이 남쪽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김구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라 사랑은 기쁠 때,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못 참을 때도 해야 한다. 나라 사랑은 변하면 안 된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모든 고난을 다 이겨 낸 것이다. 그것 없이 좋을 때만 나라 사랑하고, 슬프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추울 때는 나라 팔아먹고 변절하는 건, 그건 애국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 말씀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고 내 마음에 깊게 와닿았다.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2002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에서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치며 환호할 때처럼 애국심이 커지는 시기 외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는 윤봉길 의사 추도식을 할 때에 애국가 4절 가운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부분을 한번 더 부르자고 제안하셨을 정도로 그러한 자세를 강조하셨다. 나는 김구 선생님의 이러한 생각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동기생들과 같이 생도 생활을 할 때에 내 기분이 좋을 때에는 도움을 주고 베풀다가도 군사훈련, 특별훈련과 같은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이 진정한 동기생애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나라 살림이 좋을 때에 애국심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기에 애국심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구 선생님과 그 혼을 이어받은 김신 선생님께서 그러한 자세를 실천하셨다는 점에서 존경스러웠고 나 또한 장차 대한민국 공군을 수호하는 장교가 될 사람으로서 이러한 점들을 본받고 싶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께서 간절히 바라셨고 이루고자 하셨던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 사례들과 여러 가지 남북한의 비극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 김구 선생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일인 남북 분단과 긴장 관계가 하루 빨리 풀리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김신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조종사의 꿈을 이루시고 태극 마크를 단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날아오르면서도 그 벅찬 느낌을 오래 느끼시지 못하고 6.25 전쟁에서 조국의 산하에 폭격을 하셔야만 했다. 갓은 고난 속에서 익힌 소중한 자산인 비행 기술을 일본이 아닌 동족과 싸우는 데에 써야만 했던 그 마음은 상처로 얼룩졌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슬기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나도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임무를 부여받은 공군사관생도로서 앞으로 힘든 고난들이 내게 올지라도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교훈들을 생각하며 이를 이겨내고 싶다. 또한,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누리고 있는 학교와 국가가 주는 혜택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힘든 일과 앞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이 교육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고 헌신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싶다. 앞으로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이뤄내고 싶고, 마침내 이 책의 제목처럼 조국의 하늘을 날면서 독립 운동가 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데에 평생을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한다.



##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길

1학년 최은유

공군사관생도. 이는 우리 학교 학생을 뜻하는 말이자, 나의 동기, 나의 선배를 뜻하는 말이다. 왜 공군사관생도가 되었는가? 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였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공군장교가 되고 싶어서 등의 이유를 댈 것이다. 그렇다. 우리 대부분은 꿈을 찾아서 이 학교를 왔고 입시절차를 통해 이 학교를 온 것이다. 정말 나라를 위한 희생, 국민을 위한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되고 싶어서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만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사관생도 신조를 수십번 읽었음에도 희생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한다.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다. 하지만 나는 희생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소년을 위해 모든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간 나무의 모습이 희생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소년을 위해 모든 것을 했듯, 『조국의 하늘을 날다』, 이 책을 보면 김신장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입시를 통해 공군사관학교를 들어와, 공군장교라는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이 책의 주인공인 김신 장군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군이 된 사람이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직접 인도와 미국에서 비행 훈련까지 받았다. 다양한 훈련을 공군사관학교 학과과정에서 배우고 졸업 후에도 비행장 등 훈련부대에 가서 비행 등을 배우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과정을 밟아 온 것이다. 백범 김구의 아들로 자라 공군참모총장까지 하기까지의 그 노력은 현세대의 우리 상황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다르다. 누군가가 밟았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이다.

“돌아온다니, 무슨 얘기냐? 나라가 수립돼도 너 같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너는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공부를 계속해라.”(92p)라는 김신의 아버지인 김구의 단호한 말에 대해서도 김신 장군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셨다고 얘기한다. 이런 김신의 생각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나였다면 나의 부모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약간의 원망과 실망이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의를 위한 일이다라고 자식인 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자체로 말이다. 이런 부분에서 난 깨달은 점이 있다. 나 또한 생도로서, 추후에 될 공군장교로서, 나 자신과 내 주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완벽히 수행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가짐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광복이 되기까지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은 얘기, 남쪽이든 북쪽이든 삼천만 민족이 똑같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 민족이 잘 단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이에 덧붙여 이곳에 온 이유를, 남쪽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 댔다. 그런데 아버지가 북쪽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박수는 커녕 바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통일을 위해선 소련도 미국도 아닌 우리 동쪽끼리 해야 한다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을 보고, 통일 정부를 세우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127p)

이런 상황을 겪었던 김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허탈감이 가장 먼저 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김구가 광복된 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족이 단합하자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쪽끼리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는 독립운동을 하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갈라서서 각각의 단독정부를 세우자 하는 것은 서로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만을 생각한 것이다. 역사들을 보면, 나라가 힘들 때는 함께 화합을 하고 다같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그 후에 나라가 평화로워지기 시작하면

나라 안에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그런 일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열이 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화합을 바라고 서로가 힘을 합치자는 주장을 했던 것은 꽤나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이 또한 자신의 이득을 줄인 희생의 사례라고 보인다.

김신을 설명하는 글을 찾아보면 ‘독립운동가인 김구의 아들로써, 독립운동 거두의 아들로써 힘겨웠던 삶,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멤버로서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공군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중화민국 대사, 국회의원, 교통부장관의 자리에서 공무를 돌보았다.’는 말로 설명해놓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나는 김신에 대해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다. 희생.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는데 이런 현대사를 직접 몸소 겪은 사람이 김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 대항한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한반도 상공에서 전투기를 모는 모습을 꿈꾸던 그는 같은 민족에 맞선 전쟁 속에서 조종간을 잡았다고 한다. 독립운동을 할때만 해도 한반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결국 조선 출신인 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외세의 침략을 막는 것은 힘들고 슬픈 일은 맞을 수 있지만 한 나라 사람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참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남한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양측을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득하던 김구의 모습을 보며 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남북연석회의에 김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당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었다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김신은 김구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안될지를 따지면서 그 성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신은 혁명은 하늘의 명을 통째로 바꾸고 시대의 대세를 근본부터 바꾼다는 뜻이니 목숨 걸고 매진한다해도 성공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분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혁명에 나서고 민족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김구와 김신은 노력하였던 것이다. 대의를 위해 자신들 개인적인 힘든 것은 포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생이라는 말로 그를 정의했던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이 지금은 국가유공자의 자식이며,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김신처럼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써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선열들이 분투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얻는 막막한 심정 속에 불안과 외로움에 떨어야 했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이 구절은 김신의 마음을 완벽히 대변해주는 말이자, 희생한 그의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 생각해보면 전쟁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모님이 독립운동가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 온 것도 아니다. 김신에 비하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희생정신을 가질 수 없고 나라를 위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려고 사관생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희생의 삶에 한 걸음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김신처럼 거창하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군인이 되겠다고는 감히 못 말하겠다. 아직은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을뿐더러 내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 희생과 배려를 동기들에게 하고, 사관생도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장교가 된다면, 장교가 된 후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고 나면 그 때쯤이면 나라를 지키겠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거창한 말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 생활을 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갈 것이며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이기심 보다는 모두를 위한 배려와 대의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하늘을 말이 없지만 그 가르침은 사람을 움직인다

1학년 유재운

“知其不可爲而爲之.” 이는 ‘그 아니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내고자 끝내 노력한다.’라는 뜻이다. 김신 장군의 아버지 김구 선생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현실의 유불리나 자신의 사리사욕은 뒤로한 채 외로운 사투를 홀로 이어가셨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는 그런 아버지 김구 선생의 정신 아래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김신 장군의 회고록이다. 그리고 회고록에 나타난 김신 장군님의 삶 속에는 오늘날 공군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라는 ‘공군 핵심가치’가 깃들어 있었다.

김신 장군의 걸어온 길은 ‘도전’ 그 자체였다. 장군의 어머니께서는 김신 장군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셨다. 아버지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계신 터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며, 운 좋게 얼굴을 마주하더라도 따듯한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열혈 독립투사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김신 장군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장군을 키우셨지만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은 결코 쉬울 수가 없었다. 할머니와 어린 김신 장군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며 살았다. 김신 장군의 역경에 대한 도전은 그가 공군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었다. 수많은 도전 가운데에서도 미국에서의 비행 훈련 일화가 인상적이었다. 김신 장군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김신 장군은 한국인이어서 중국 정부가 미국 입국을 위한 신원 보증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중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일제에 대항한 공로를 입증하고 신원 보증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랜돌프 공군기지로 이동한 후에 바로 비행 훈련을 받지도 못했다. 그곳에서 미국식으로 다시 기본훈련을 3개월이나 받아야만 했다. 비행 훈련 역시 초급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실수를 하면 무릎에 멍이 생길 정도로 세계 맞기도 했다. 훈련장

밖에서는 황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기차역, 극장, 학교 등 거의 모든 장소에 흑인과 백인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다. 황인종이었던 김신 장군과 다른 학생들은 매번 안내인에게 어느 구역으로 가야 할지 물어보아야만 했다. 때로는 입장이 거절당하기도 했다. 랜돌프 공군기지에서의 역경은 김신 장군의 조종사를 향한 도전을 막진 못했다.

맹장 수술, 탈장 수술, 말라리아를 앓은 횟수는 100회 이상, 장티푸스 병력까지. 김신 장군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헌신’ 정신만큼은 동시대 누구보다도 강인했다. 부하들을 향한, 국가를 향한 ‘헌신’, 이것은 김신 장군이 지켜왔던 소신임에 분명하다. 적의 탄약고를 폭파하는 작전 이후 귀환할 때의 일이었다. 김신 장군을 뒤따르던 부하는 김신 장군의 기체에서 연기가 난다고 보고했다. 기체가 손상된 경우 비행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신 장군은 비행기를 끝까지 사수했다. 인민군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버리게 되면, 본인은 인민군의 포로가 되거나 사망했을지 모르며, 비행기의 잔해는 북한군, 혹은 중국, 소련군의 연구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김신 장군은 비행기와 하나 되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강하하는 형식으로 비행기를 몰았다. 다른 모든 비행기들은 강릉 본부로 귀환했으나, 김신 장군의 비행기는 여의도 비행장에 긴급히 착륙했다. 이 사건 직후, 공군본부에서는 김신 장군을 소환했다. 부대 전체를 지휘하고 운영해야 할 사람이 직접 비행을 나가면 어떡하냐는 이유였다. 하지만 김신 장군은 절박한 상황에서 부대장이 직접 출격했던 것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꾸만 전사자가 생기는 와중에 조종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만 있었다. 조종사들 뒤에서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들의 맨 앞에서 지휘하는 것,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조종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이번 일로 인해 대구 본부로 근무지가 바뀌게 되었다.

공군 장교 김신은 당시 가장 전문적이었던 장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김신 장군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국의 공군은 정찰기들이 목표지점을 사진 찍어오면 각 국가별로 타격목표를 정해서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투에 임했다. 한국 공군의 경우는 주로 압록강 근방, 청천강 이북까지 작전을 수행하러 갔었다. 하지만 한국의 비행기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면 소련의 성능 좋은 미그기들이 출몰하였기 때문에 미군 비행기들이 시간 맞춰 호위하러 왔다. 한편, 북한군은 평양에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승호리에 철교를 건설하였다. 미군이 폭격을 시도했으나 곡사포탄이 빗발치는 바람에 번번이 정밀폭격에는 실패하였다. 전세계의 최고 군사력을 갖추었음에도 폭격에 실패한 까닭은, 사실 미군에는 명목상의 출격횟수가 중요할 뿐, 군이 위험을 감수하며 까지 고도를 낮추어 폭격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사령부에서는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공군에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기존의 전술로는, 8천 피트에서 강하하여 3천 피트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김신 장군은 이번 작전에서만큼은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4천 피트에서 강하해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폈다. 고도가 낮다 보니 출격 비행기들 가운데 한 대가 투하한 폭탄 파편에 맞아 손상됐지만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작전은 성공. 한국 공군은 미군이 번번히 실패한 승호리 철교 폭파에 성공했다. 당시 전투비행전대장이었던 김신 장군의 ‘전문성’이 빛난 작전이었다.

김신 장군은 인생 2막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셨다. 타이완대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군인이었을 때처럼 강인한 도전정신, 국가를 위한 헌신, 군인으로서의 전문성보다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특히 타이완의 장제스 총통과의, 팀워크가 돋보였다. 장제스 총통은 당시 중국 본토를 잃고 중공이 강대해져 가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반공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타이완과 공통분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대사이자, 중국에서 생활하며 항일활동에 전념하였고, 얼마 전까지는 한국전쟁에서 공군으로서 북한과 맞서 싸운 김신 장군은 장제스 총통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장제스 총통은 그의 아들인 장징궈가 자신에게 안 좋은 소식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김신을 통해 타이완의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타이완의 대외관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집안 사정을 상담하기도 했다. 김신 장군은 타이완의 대사로 있으며 장제스 총통과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타이완과의 우호 조약 체결에 앞장섰다. 이후 대한민국의

식량 사정이 나빠졌을 때, 타이완은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정부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베트남등의 나라를 고려했으나 각각 거리가 너무 멀고, 한국인의 입맛과 맞지 않아 별 대책을 못 내었다. 그때 정부가 눈을 돌린 곳이 타이완이었다. 타이완의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는 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타이완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평시에는 비축해놓은 쌀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때 활약을 한 것이 김신 장군이었다. 장제스 총통은 흔쾌히 식량을 내주었으며, 식량 수송을 위해 타이완의 군대를 내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오슝에 한국 교포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는 등의 활동 역시 전개하였다.

종교 시간이 끝나거나, 일과 후에 석식을 먹고 생활실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가끔 올려다 본다. 푸른 바탕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을 때도 있고, 노을빛이 물들어 분홍색 구름을 꽃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왠지 모를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저 하늘을 내가 지키여 한다는 사명감에 홀로 불탈 때도 있다. 군인이라는 이름, 그중에서도 공군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무겁게 느껴진다. 공군 핵심가치는 아직 내게는 멀게만 느껴진다.

기초군사훈련 때부터 네 가지 가치에 관해 동기생과 토론하며 ‘공군 핵심가치’에 대해 배워나갔다. 선배님들과 학교가 앞선 공군 가치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예비생도였던 나는 나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거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자신은 없다고 솔직히 적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우겠다고 적었다. 기초군사훈련이 지난 지금, 15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생도 생활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철한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김구 선생의 영향일까, 김신 장군님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그의 삶 속에는 ‘공군 핵심가치’가 이미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었다. 그는 ‘공군 핵심가치’가 글자로 적히기 전부터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회고록을 읽고 난 후, 난 그동안 ‘공군 핵심가치’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공군 핵심가치에 걸맞은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 가치들을 너무 의식해서는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김신 장군과 같이 역사에 길이남을 명예로운 군인이 되기까지는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동시에, 내 생활 속에서 그 가치들을 녹여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 역시 공군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인 ‘도전’의 일부가 아닐까 하며 새로운 내 앞날을 다독여본다.

## 은빛 날개 너머에 비친 삶을 기리며

1학년 이유진

공군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인물의 자서전임에도 평생 군대라는 조직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사관생도가 되고자 마음먹은 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나에게는 김신 장군이라는 인물과 그 삶이 완전히 처음 접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무언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만 모르고 있었던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런 내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게다가 나는 어릴 적부터 한국사를 좋아했기에 독립운동의 역사는 꿰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임시정부의 아버지인 백범 김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책을 만나고 난 뒤, 나는 단 한번도 누군가의 아버지인 김구를 생각해본 적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그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설렘을 한가득 안고 김신 장군의 삶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떠오른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할머니 손에 자라나던 어린 김신이었고,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피난하던 청소년기의 김신이었고, 혹독한 비행 훈련을 받던 청년 김신이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부대장이었고, 공군을 개혁하던 공군참모총장이었으며, 타이완 대사였고 교통부 장관이었다. 이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딱딱한 위인전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었던 이 책이 자서전(회고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인이 써 내려간 덕분에 김신이라는 인물의 삶을 그 자체로, 다시 말해 개인적인 측면에서 조명해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내게 가장 감동을 준 부분은 1부 1장, ‘수학여행에서 평생의 꿈을 세우다’이다. 김신 장군은 안신 학교 재학 시절 수학여행으로 미림 비행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군들이 자신들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신 장군은 그때 비행하던 조종사들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 조종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김신 장군은 그 꿈을 이루었고 공군참모총장을 맡는 동안 매년 공군의 날 행사에 초등학교 20~30명을 초대해 수송기에 태워주며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주려 노력했다. 그로부터 또다시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을 때, 김신 장군은 우연히 그 비행기의 기장이 과거 공군의 날 행사에 참여해 김신 장군 덕분에 조종사의 꿈을 키운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열매를 맺은 것에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으나 내겐 큰 의미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거나 무엇이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다른 친구들처럼 이것만 생각하면 벅차오르고 가슴이 뛰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번 생각은 해왔지만, 워낙 뭘 해도 그럭저럭 잘 해내고 즐기는 스타일이라 다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항상 부러웠었다. 지금도 조종사가 되고 싶은 것은 맞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그라운딩을 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다른 특기를 생각해본 적 없기에 오직 조종만을 바라보고 이곳에 오고 노력하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볼 때면 신기할 뿐이었다. 그렇기에 이런 나와 다르게 가슴 벅차게 하는 계기가 있고,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결국 이뤄냈고, 다시 그것을 후대에 물려준 김신 장군의 모습이 내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이 책을 읽고 내가 감히 김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설사 있다 한들 조심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러 사례를 보면서 올곧고 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고 느끼게 됐다.

먼저 김신 장군은 공군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돈을 횡령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임 총장들이 가져갔던 자동차와 근무비를 회수했고, 본인도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 모든 것들을 공군 본부로 돌려보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타인들의 원망과 원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단력 있게 실행에 옮긴 그 행보가

존경스러웠다. 또, 타이완 대사로 재직 당시에는 교민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교통부 장관이었을 때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통행 특허를 받은 고속버스 회사들만 다닐 수 있었던 불합리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고속버스 회사들과 맞서 지금의 모습대로 바꿔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무책임하고 불미스러운 행태를 보이자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눈을 감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며 직접 대통령에게 전부 말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이러한 김신 장군의 행보에 탄지를 걸고 투덜거렸을 수도 있겠지만, 변화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불편함을 견딜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난 그저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할 뿐이다.

만약 누가 내게 내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정의롭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근간이 된 나의 가치관은 다음과 같다. 권력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가치관을 실천할 때 세상이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렇기에 언젠가 장교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관생도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연마해가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고 불의를 참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나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게 될 사람들 모두 위와 같은 김신 장군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의 변화는 사소할지 몰라도 그 변화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기에, 이러한 조그마한 계기들이 모여 올바른 공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당장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다. 많은 사람이 모여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모래성이라 한들 그 근본이 모래성이라면 단 한 번의 파도만으로도 망가질 수 있다. 그저 느리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벽돌을 쌓아가며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완성할 날을 기다릴 뿐이다.